

34년 오직 한 길 빅토리 바디샵 벨플러워 플러튼 세리토스 롱비치 다우니 놀원

LIFETIME WARRANTY! 최대 시설/ 최고 서비스/ 저렴한 가격



- ✓ 보험 수리 전문 (일단, 전화 먼저 주세요!!)
- ✓ Lease Return
- ✓ 보험 없는 분들 오시면 부담없이 수리해 드립니다
- ✓ 전화 or 방문상담 환영
- ✓ Towing & Rent Car

(562)920-9745~6 17441 Clark Ave, Bellflower, CA 90706
Email: victoryautobody@gmail.com

오픈특가 \$7.00/LB

aci store

한국택배/ 24H 메일박스 오픈 (부에나팍 사거리)

- *전세계 16개국 25직영점 NETWORK/ 항공-해운 물류서비스
- *전자상거래-배대지-3자물류대행-한국역직구대행-전세계택배
- *개인소화물-귀국이사-미국내화물/이삿짐운송-수입수출통관

T.714.735.9277 www.aciexpress.net
www.shippingtohome.com



갈갈 웃음

[그 여자의 실체]

- 에로 영화를 보러 갔다. 숨 막히도록 친한 장면이 나오자 그녀는 내 허벅지를 꼬집으며 (())라고 말했다.
연애 초반: 민망해!
연애 중반: 죽인다!
연애 후반: 잘 봐둬!
- 생일선물로 화장품을 사줬다. 그런데 그녀의 피부에 안 맞는 화장품인 것 같다. 그녀는 내 귀를 끌어대곤 (())라고 말했다.
연애 초반: 잘 쓸게!
연애 중반: 현금줘!
연애 후반: 바꿔와!
- 찬스가 왔다. 좋아하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그녀에게 키스를 퍼부었다. 그런데 갑자기 그녀가 입을 떼며 내게 (())라고 말했다.
연애 초반: 살짝해!
연애 중반: 더 깊게!
연애 후반: 장난해?

[미시와 앵무새]

어느 미시가 출근길에 보니 애완동물 가게 앞 횡단에 앵무새 한 마리가 앉아있었다. 앵무새가 미시에게 말했다.
"어이, 아줌마! 아줌마 참 못생겼네~!"

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오른 미시는 부리나케 그 집을 지나가버렸다. 그런데 퇴근길에 다시 그 가게 앞을 걸어가는데 앵무새가 또 다시 중얼거렸다.
"아줌마, 참 못생겼어~!"

화가 머리 끝까지 나버린 미시는 가게 안으로 뛰어들어

가서는 한 번만 더 앵무새가 못생겼다고 하면 그 앵무새를 죽여버리겠다고 퍼부었다.
가게 주인이 머리 조아려 사과하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약속했다.

이튿날 아침 미시가 그 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앵무새가 또 그녀를 불렀다.
"아줌마!"
미시가 걸음을 멈추었다.
"왜?"

그러자 앵무새가 말했다.
"잘 알면서~!"

[남자들이 개를 좋아하는 이유]

- 주인이 귀가하는 시간이 늦을수록 개는 더 반갑게 맞아 준다.
- 주인이 다른 개와 놀아 줘도 탓하지 않는다.
- 그 성미가 한결같다.
- 주인이 방바닥에 많이 어질러 놓을수록 더 좋아한다.
- 그 부모가 찾아오는 일이 없다.
- 잔소리를 않는다.
- 함께 외출할 때 주인을 기다리게 하는 일이 절대 없이 항상 태세를 갖추고 있다.
- 주인이 술에 취해 있으면 좋아한다.
- 주인한테서 다른 개의 냄새가 난다고 역정을 내는 일이 없다.

[동물 뉴스]

- 장기매매 브로커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.

이들은 쓸개 빠진 꿈을 은밀히 거래해 왔으며 벼룩시장에 허위광고를 내 벼룩의 간을 빼먹은 적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

- 과속을 하다 5중 추돌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친 거북이가 입건됐습니다.
유일한 목격자인 굼벵이는 "거북이가 엄청난 속도로 달렸다"고 증언했습니다.
이에 피의자인 거북이는 "누구 악 울리냐!"며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.

- 술에 취한 고양이와 지나가던 호랑이에게 싸움을 걸었다가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습니다.
중환자실에 입원치료 중인 고양이는 "그렇게 크고 센 고양이는 처음 봤다"며 "주들이 자주 목에 방울을 달려고 해서 찾길에 그랬다"고 말했습니다.
한편 호랑이는 "저번에는 하룻강아지가 범 무서운 줄 모르더니 이제 고양이까지 탐낸다. 못살겠다"고 한탄했습니다.

[신하의 마지막 소원]

옛날옛적 어느 나라의 자칭 충신이 본의 아니게 큰 죄를 짓고서 임금님 앞으로 끌려나왔다.
"네 이놈, 네 죄를 네가 알렸다!"
"전하, 소인이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. 죽여주시옵소서!"
"오냐, 네 죄를 알긴 아는구나. 어디 네가 죽고 싶은 대로 죽여줄 터이니 마지막 소원이라고 생각하고 말해 보아라. 어떻게 죽고 싶은 것이냐?"

그러자 신하가 주저주저 하면서 간신히 말을 이었다.
"전하! 소..... 소.....신은..... 늙어 죽고 싶습니다!"

성공을 향한 여정,
KIM & CHOI 회계법인 과 시작하세요!

지난 40년간 가든그로브에서 지역 한인 비즈니스와 세무관련 업무를 자문하고 수행하며 함께 이민사회의 발전과 역사에 동참해온 이광연 회계법인이 KIM & CHOI 회계법인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.

| ACCOUNTING | TAX | CONSULTING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회계업무 | 개인/회사 세무 (타주포함) | 회사 설립 |
| 급여 관련 | 인컴택스/ 자산계획/관리 | 사업 운영 전략 |
| 예산/재무 계획 | IRS, FTB, CDTFA, EDD | 재무/회계 상담 |
| 각종 세금 관련 | 세무 회계 감사 | 사업 가치 산정 |
| | 해외자산 FBAR-Report | 각종 거래 관련 |

Yongsuk (Bob) Kim, CPA
- University of California, Los Angeles
- Member of Gatto McFerson, CPAs, 25 yrs.

Sue Choi
- California State Univ, Fullerton
- Antonios K. Lee, CPA, P.C., 12 yrs.

T. (714) 539-6444 | 9828 Garden Grove Bl. #213
F. (714) 539-9261 | Garden Grove, CA 92844
email: info@kimchoicpas.com

부동산에 관한 모든 일을
완벽하게 해결해드립니다.

오렌지 카운티 전지역!

주택 / 아파트 / 상가 / 사업체 전문

REALTOR **데이빗 전**

(714)309-2355